아베 "김정은 위원장 직접 만날때 됐다"

서훈 국정원장 방북성과 설명
한반도 비핵화·평화 협조 당부
"문재인 정부서 한일관계 긴밀"

문재인 대통령의 특별사절단으로 북한을 방문했던 서훈 국가정보원장이 10일 아베 신조 일본 총리를 예방하고 방북 성과를 설명했다.

서 원장과 아베 총리는 남북과 북미 관계와 함께 북일 관계를 개선해야 한다는 데 의견 일치를 봤다. 아베 총리는 "직접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을 만날 때"라며 북한과의 관계 개선에 의욕을 보이기도 했다.

아베 총리는 서 원장과 만난 자리에서 모두 발언을 통해 "지난주 방북하신 후 얼마 시간을 두지 않고 일본을 방문해 회담 내용을 설명해주시는 것에 대해 감사드린다"며 "문재인 정권 출범 후 한일관계가 그만큼 긴밀하게 됐다는 것을 세계에 알리는 좋은 기회"라고 말했다.

서 원장은 "문재인 대통령은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 문제에서 과거 어느 때보다도 아베 총리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다"며 "그런 관점에서 한국과 일본 사이에 소통과 협력을 강화해야 한다고 생각하신다"고 밝혔다. 서 원장은 아베 총리에게 "최근 일본에 지진과 태풍으로 큰 피해가 발생했다. 일본 국민에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는 문 대통령의 말을 대신 전하기도 했다.

서 원장은 이날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비핵화 의지를 전달하고 이를 토대로 북미 간 대화가 재개될 수 있도록 일본 측도 협조해달라는 의사를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서 원장은 예방 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방북기간 북한으로부터 일본에 대한 메시지를 들었는지 묻는 말에 "필요한 논의는 북한과 했다. 전반적으로 북한과 북일 관계에 대한 얘기가 오갔다"면서 "납북자 문제는 북일 관계의 전반적인 상황에 포함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아베 총리가 (오늘) '트럼프 대통령, 문 대통령을 통해 일본의 입장을 전달했는데, 이제는 직접 김정은 위원장을 만나서 이야기할 때가 됐다'는 강력한 의지를 말했다"고 설명했다.

서 원장은 "(한국 정부는) 기본적으로 북일관계가 개선돼야 한다는 입장을 갖고 있고 그런 점에서 할 수 있는 것은 언제든 한다는 입장"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아베 총리에게 '북한 문제,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체제 문제가 그동안 약간 굴곡을 겪다가 분위기가 개선될 수 있는 상황이 됐으니 남북 관계와 북미 관계에 덧붙여 북일 관계까지 병행해서 조화롭게 진행된다면 여러 문제가 해결되는데 가장 바람직하다'고 말했다"며 "이에 대해 아베 총리도 공감을 표했다"고 설명했다.

이날 서 원장의 예방과 관련해 일본 정부 대변인인 스가 요시히데 관방장관은 정례 기자회견에서 "아베 총리가 서 원장에게 '남북 정상회담을 포함해 남북간의 협의가 북미간의 합의 이행을 위한 구체적인 행동으로 이어지기를 기대한다'는 취지로 말했다"고 전했다. 스가 장관은 "미일, 한미일간 긴밀하게 연대해 갈 것에서 서 원장과 아베 총리의 의견이 일치했다"며 "한일간 납치문제의 조기 해결을 위해 협력할 것에 대해서도 같은 의견이었다"고 설명했다. /연합뉴스

ICBM 없이…北 9·9절 열병식 9일 북한 평양 김일성 광장에서 열린 북한 정권수립 70주년(9·9절) 기념 열병식에서 인민군 탱크부대가 지나가고 있다. 열병식에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은 등장하지 않았다고 AFP 통신 등 외신이 보도했다. /연합뉴스

"평화협상·경제개발에 초점…이전과 많이 달라졌다"

외신기자가 지켜본 北 9·9절

정권수립 70주년(9·9절)을 기념해 대규모 열병식과 집단체조를 선보인 북한이 경제개발에 초점을 맞추고 남북정상회담을 강조하는 등 과거와는 차별화된 모습을 보여줬다고 외신들이 9일(현지시간) 전했다.

9·9절을 전후해 평양을 취재 중인 ABC 뉴스의 마사 래디츠 기자는 이날 리포트를 통해 "과거 열병식에 공개됐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이 이날은 등장하지 않았다"면서 "북한은 전체적으로 경제개발, 과학과 기술, 근대화를 훨씬 강조했다"고 평가했다.

래디츠 기자는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김일성광장 주석단에서 지켜보는 가운데 수많은 군인이 분열(分裂) 행진을 했고 광장에 탱크 부대, 로켓 발사 장치, 전투기 등이 나타났지만, ICBM은 없었다"고 전했다.

그는 "불과 7달 전 같은 장소에서 열린 열병식에 ICBM이 등장했고 김 위원장은 연설에서 북한이 세계 수준의 군사력을 갖췄다고 선언했지만, 이는 6월 싱가포르 북미 정상회담을 하고 한반도 비핵화를 약속하는 공동성명에 서명하기 전의 일"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이번 열병식에서는 몇 년 전과 다른 변화를 볼 수 있었다"면서 북한에 머무른 지난 며칠간 북한이 경제발전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여러 장면을 목격하고 경험했다고 전했다.

래디츠 기자는 "김 위원장은 미국과 한국을 협상 테이블로 앉도록 촉발한 핵확산 시도 후에 경제 발전을 추구하려고 결심한 것처럼 보인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비록 김 위원장이 한반도 비핵화를 논한 트럼프 미 대통령과의 6월 정상회담 이후에 구체적인 움직임을 보여준 것은 거의 없지만, 분명히 김 위원장은 한국과의 평화 협상에 '올인'(다걸기) 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연합뉴스

中알리바바 마윈 내년 9월 회장직 사퇴 장융 후계자 지명

중국 정보통신(IT) 업계의 거인인 마윈이 내년 9월 10일 알리바바 회장 자리에서 내려온다.

그날은 마윈의 만 55세 생일이자 절강성 항저우의 한 아파트에서 알리바바를 창립한 지 꼭 20년이 되는 날이다.

마 회장은 10일 인터넷으로 성명을 내고 "오늘 알리바바가 19주년을 맞는 날, 감격스러운 마음으로 모두에게 말씀드린다"며 "이사회의 승인을 얻어 알리바바 설립 20주년 기념일인 내년 9월 10일 알리바바 이사회 주석(회장) 자리를 장융 CEO에게 승계한다"고 밝혔다.

마 회장은 "오늘부터 장융과 전적으로 협력해 우리 조직의 과도기를 위한 준비를 하겠다"며 "2019년 9월 10일 이후에도 저는 2020년 알리바바 주주총회 때까지는 여전히 알리바바 이사회 구성원 신분을 유지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는 마 회장이 회장직에서 사퇴해 경영 일선에서는 물러나겠지만 여전히 알리바바 지분 6.4%를 보유한 대주주로서 경영 전반에 일정한 '지도력'을 행사하겠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앞서 마 회장은 지난 7일(현지시간) 뉴욕타임스(NYT)와 인터뷰를 통해 경영 일선에서 후퇴하겠다는 뜻을 먼저 드러냈다. /연합뉴스

박종구의 中國 인물 이야기

〈초당대총장〉

〈149〉 시인 왕유

왕유(王維, 699~759)는 성당(盛唐) 시대의 대표적 시인 겸 화가다. 현재의 산서성 분양에 해당하는 분주 출신으로 자는 마힐이다.

사마 왕처렴의 장남으로 출생했는데 모친 최씨는 독실한 불교신자였다. 당의 최전성기인 현종때 주로 활동했는데 성당의 활기가 깊이 느껴지던 시대였다. 개원지치(開元之治)로 상징되는 태평성대였는데 연호가 천보로 바뀌는 740년대 초부터 정치와 경제의 모순이 본격화되었다. 그의 삶은 이런 시대적 흐름과 무관할 수 없었다. 이름 유와 자 마힐에서 불교 특히 유마경의 영향을 크게 받았음을 알 수 있다. 동생 왕진(王震) 역시 뛰어난 문재를 보여 형제가 장안 문화계의 주목을 받았다. 어려서부터 시를 지었으며 10대 중반에는 이때 응벽지라는 서정시를 남겼다. 757년 숙종이 장안과 낙양을 회복하자 반군 휘하에서 직책을 맡은 일로 문책을 받았지만 사면되었다. 이후 중서사인을 거쳐 상서우승이 되었다. 말년에는 섬서성 망천의 별장에서 은퇴 생활을 즐겼다. 초당 시인 송지문의 별장을 구입해 개조한 것으로 주변 경치가 매우 아름다운 곳이었다. 이곳에서 배적, 구위 등 문우와 시를 쓰고 그림을 그리는 선비의 삶을 즐겼다.

시선(詩仙) 이백, 시성(詩聖) 두보와 함께 시불(詩佛)로 불리며 당대 3대 시인의 한명으로 평가된다. 문인화에도 뛰어나 남종화의 시조로 존숭받는다. 북송의 시인 소식은 "시속에 그림이 있고 그림 속에 시가 있다"(詩中有畵 畵中有詩)라고 높이 평가하였다. 자연시에 뛰어나 동진의 도연명이 발전시킨 자연시가 그에 이르러 한 단계

이백·두보와 함께 당대 3대 시인

상당한 경지에 이르렀다. 721년 진사에 급제해 태악승이 되었다. 그가 당시 세도가인 구공주에게 잘 보여 급제했다는 풍문이 널리 퍼졌다. 음악에도 조예가 깊은 왕유가 구공주 집에 가서 비파로 울륜포라는 곡을 기막히게 연주해 신임을 얻었다는 일화다. 그의 탁월한 실력을 감안할 때 믿기 어려운 소문으로 보인다. 태악승을 거쳐 우습유, 감찰어사, 좌보궐 등의 관직을 역임했다. 모친상을 치르기 위해 잠시 관직을 떠났으나 현종 말기 급사중과 같은 요직을 역임하였다.

동생 왕진과 함께 장안에서 많은 권문세족과 교류하였는데 하루는 황족인 영왕의 초대를 받았다. 그의 시녀중에 떡을 잘 만드는 사람의 부인이었던 여성이 있었다. 영왕이 전남편을 불러 서로 대면케 하자 그녀는 눈물을 흘리며 고통스러워했다. 영왕이 이 장면을 시로 지어보라고 하자 왕유는 곧바로 "지금의 은총 크지만 옛날 당신의 은혜 잊을 수 없어 꽃을 보아도 눈물만 나네…"라는 시구를 완성하였다. 영왕이 이 시구에 크게 감동 받아 그녀와 전남편이 재결합되도록 하였다고 한다.

755년 안녹산의 난이 일어나자 반군에 사로잡혀 낙양에 끌려가 마지못해 관직을 맡게 되었다. 하루는 안녹산이 응벽지라는 곳에서 연회를 베풀었는데 성숙했다는 평을 받는다. 특히 망천에서의 은퇴 생활 중 지은 자연시에 수작이 많다. 대표적인 작품이 7언절구인 위성곡(渭城曲)이다. 친구를 먼 안서도호부로 보내며 느낀 안타까운 심정을 절묘하게 묘사한 시다. "그대에게 권하니 술 한 잔 더 하시오. 서쪽 양관으로 가면 친구가 없을 것이니"(勸君更盡一杯酒 西出陽關無故人)은 당대의 절구가 아닐 수 없다. 자를 마힐로 지을 정도로 불교에 깊이 빠져 장안 남쪽에 있는 '향적사를 찾아가서'(過香積寺)라는 유명한 시를 남겼다.

그는 반관반은(半官半隱)의 생활을 즐겼다. 천보 연간 재상을 19년이나 역임한 이임보의 전횡에 환멸을 느껴 소극적인 공직생활로 일관했다. 자주 종남산의 별장에 은거했다. 강남 3대 누각의 하나인 무창의 황학루에 관해서도 명시를 남겼다. 강태수를 전송하다(送康太守)라는 시로 740년 전중시어사 벼슬에 있으면서 영남 지방으로 출장가던 중에 지은 시다. 전기의 작품보다 후기의 작품에서 더 강한 자연성과 서정성을 느낄 수 있다. 묘사에 강하고 자연의 현상을 잘 표현했다는 평을 받는다. 왕맹위유(王孟韋柳). 왕유 맹호연 위응물 유종원과 함께 자연시를 대표하는 당나라 시인의 한명이다.

수기동 제일오피스텔, 급매

- ✓ **38평,** 사무실 전용
- ✓ 20층중 3층, 하천방향, **전체 올수리**
- ✓ 대형주차장 완비, 무료 주차 3대
- ✓ 관리비 저렴, 즉시 입주가
- ✓ 시세 – 1억 1000만원
- ✓ **급매 – 8400만원**

- ✓ **53평,** 사무실/주거 겸용
- ✓ 20층중 7층, 코너, 전망좋음, **전체 올수리**
- ✓ 대형주차장 완비, 무료 주차 3대
- ✓ 관리비 저렴, 즉시 입주가
- ✓ 시세 – 1억 5000만원
- ✓ **급매 – 1억 1400만원**

문의. 010-6834-7400

비금도 옆에 있는 단독섬 "팟섬"

- 신안군 비금면 죽림리 산 3번지
- 임야 14010평, 보전관리, **무인도**
- 목포에서 50분
- **향후 개발시 100억 가치 있음**
- **교환가능**(현금 3억+기타부동산)
- 매매 14억(대출3억 포함)

문의.010-3605-5000